

THE  
GLORY OF THE NATIONS

하나님 나라의  
영광

라마단 기간  
동남아시아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가이드

2024년 3월 10일 ~ 4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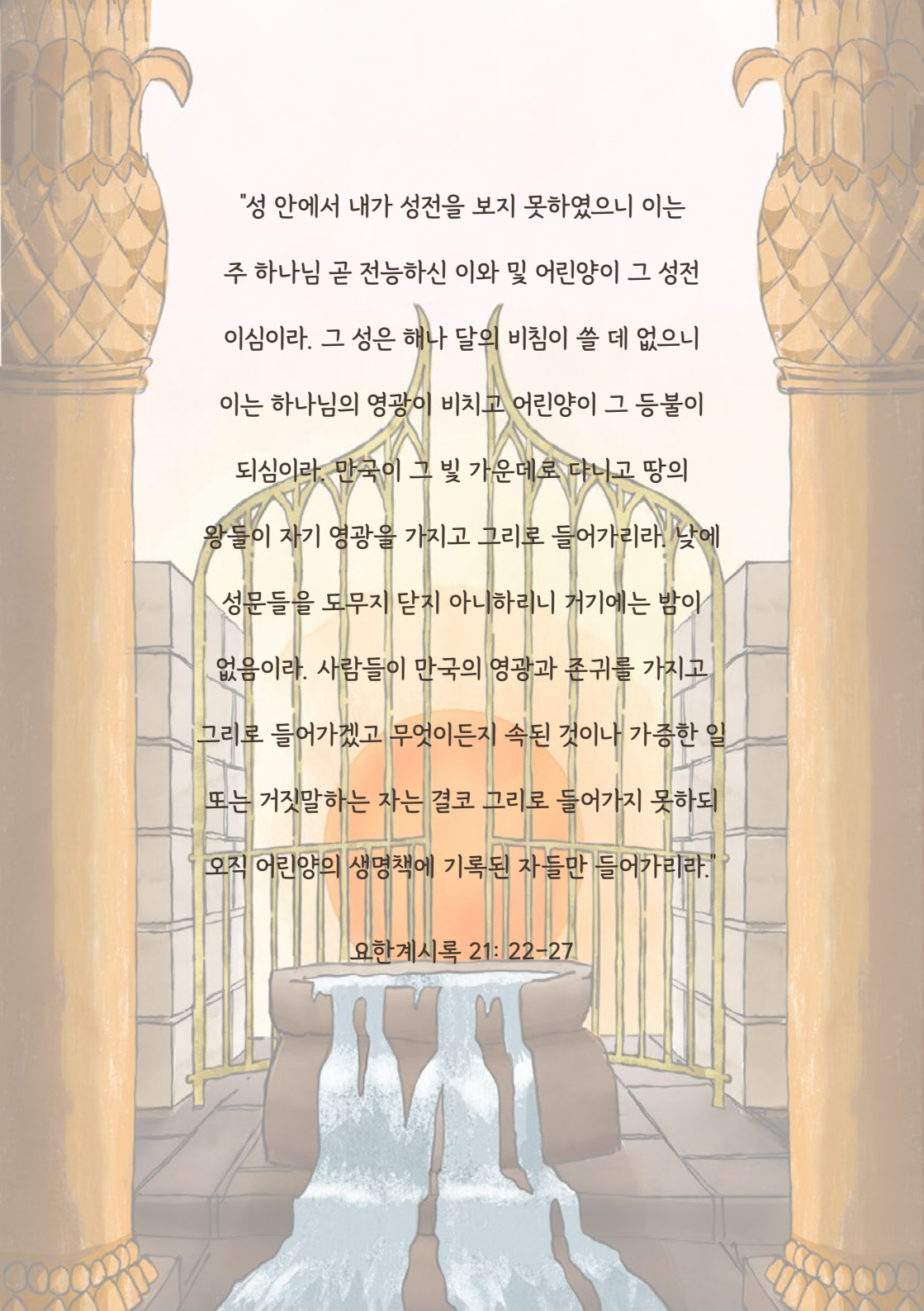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2억7천5백 만 명의 무슬림들은 앞으로 30일간 일출과 일몰 사이에 하게 될 금식을 준비하며 흥분과 기대감에 젖어 있을 것이다. 무슬림들은 이 기간에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신앙고백, 기도, 자선, 메카 순례, 금식을 선언하는 ‘다섯 기둥’을 지키게 하는 성스러운 책 ‘꾸란’의 첫 번째 구절을 신에게 받았다고 믿는다.

무슬림들에게 라마단 월은 단순히 낮 시간 동안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에게 라마단은 믿음, 거룩함, 순결함 그리고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달이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성찰하며 보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무슬림들이 하나님으로 부터 꿈과 비전을 받기 위해 더 마음을 열게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22-27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찬 영원한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드러내신 환상들을 기억하며 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이 가이드북을 사용하든, 매일 사용하든, 혼자서 기도하든, 그룹으로 함께 기도하든,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지 알기를 바라고, 그들이 가장 위대한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란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  
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 22-27


# 성전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계시록 21: 22

구약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성한 장소였다. 오늘날, 동남아시아 무슬림들은 화려한 돔 모양의 지붕을 가진 그 지역 모스크에서 신을 찾는다. 그곳에는 무슬림 예배자들이 모스크에 발을 내딛기 전 그들의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의미의 ‘holy limit’ 라는 표시가 있다. 요한계시록은 ‘holy limit’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도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하나의 성스러운 공간인 것이다.

작은 캄보디아의 한 마을에서 라마단이 시작되면 ‘우스망’은 앞으로 바쁜 한 달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그는 아내와 함께 마을에 있는 모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라마단 동안 사원은 지역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될 예정이고 철야 기도와 꾸란 암송의 장소가 될 것이다. 우스망이 사는 마을에 ‘다와’라고 불리는 이슬람 선교사가 중동에서 와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에 사는 ‘참족’들에게 정통 이슬람에 대한 가르침을 줄 것이다. 우스망은 이슬람의 진리를 배우고 그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마음 깊이 존경한다. 확실히 우스망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우스망이 전구를 교체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밖에서 모스크 안에 있던 기도 매트들을 쳐서 먼지를 털었다. 우스망은 실용적인 업무들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지만 영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다와 옆에서 우스망은 자신이 아는 게 없고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금식월이 시작될 때, 우스망은 본인처럼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즉 다섯 개의 이슬람 기둥(신앙고백, 기도, 메카순례, 라마단 금식, 자선 헌금)을 지키고 자비를 바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들어가기를 바랄 것이다.



### 3월 10일 일요일 (전 세계에서 시작되는 라마단)

라마단의 예정된 시작일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금식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도록 기도하자.

### 3월 11일 월요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금식을 함께 하기 위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만지도록 기도하자.

### 3월 12일 화요일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되는 라마단)

오늘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일몰 시간에 라마단이 시작된다. 무슬림들이 영적인 진리에 묵마르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 3월 13일 수요일

최선을 다해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우스망과 같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도록 기도하자.

### 3월 14일 목요일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은 이 기간에 지역의 모스크에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된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임재로 들어갈 진정한 길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자.

### 3월 15일 금요일

거의 몇 안 되는 '서 참족'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 3월 16일 토요일

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캄보디아의 서 참족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빛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이슬람에서 알라신은 99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들 중 하나는 빛을 의미하는 ‘안 누르’이다. 라마단 동안 폭죽이 밤하늘을 빛나게 하고, 이드(라마단이 끝났음을 축하하는 축제) 준비 기간에 종이 등불이 공공장소를 장식한다. 빛은 무슬림들에게 중요한 상징이고 신의 안내를 의미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등불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가진 영원의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된다. 오늘날 이 빛이 동남아시아 무슬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함자’는 침대 옆에 있는 등불을 켜고 일어났을 때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그날 밤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처럼 느껴졌고 그가 보았던 것을 잊고 싶지 않았다. 꿈 속에서 먼 나라에서 온 한 외국인 무리가 그의 마을에 와서 평화와 빛을 전해 주었다. 함자는 이 꿈이 그 자신과 그가 이끄는 독실한 이슬람 공동체에 어떤 의미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다.

6개월 후에 실제로 한 외국인 무리가 함자가 사는 마을에 나타났고 그는 즉각적으로 그의 꿈을 기억해냈다. 그 외국인 무리들은 자신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소개했고, 함자는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마을의 무슬림 친구들과 만나게 했다. 외국인들이 평화와 빛의 복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귀를 기울여서 들었고, 그 이야기는 함자와 그의 친구들의 마음을 깊게 어루만졌다. 태국의 그 지역은 많은 이슬람 인구가 독립을 추구하면서 수 십 년간 잦은 분쟁을 겪었다. 평화와 복음의 빛이 동남아시아의 그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 3월 17일 일요일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리자. 동남아시아의 무슬림 공동체들에게 그의 빛을 비추시도록 기도하자.

### 3월 18일 월요일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에 더 열심히 신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 3월 19일 화요일

주님께서 이슬람 종교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시도록 기도하자.

### 3월 20일 수요일

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태국에 있는 무슬림 공동체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 3월 21일 목요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무슬림들에게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진리를 따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자.

### 3월 22일 금요일

동남아시아 무슬림들이 이 라마단 기간에 하나님의 진정한 빛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 3월 23일 토요일

태국 남부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함을 통제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 영광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요한계시록 21장 24-26절

이 얼마나 기막히게 놀라운 거룩한 성의 모습인가! 자연 창조물의 기이함과 인간의 문화적 부유함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영광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돌린다.

브루나이는 자연과 인간이 만든 것이 둘 다 풍성한, 찬란한 영광이 존재하는 작은 국가이다. 그곳에는 열대 우림,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뿐 아니라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고 브루나이의 무슬림들은 매우 수준 높은 삶을 누리고 있다.

‘누르’는 방문객들이 술탄의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을 보기 위해 오는 브루나이 왕립 레갈리아 박물관에서 일 할 수 있는 것에 무척 뿌듯해한다. 브루나이의 무슬림들은 그들의 왕과 말레이 이슬람 왕정을 사랑한다. 누르는 화려한 왕의 전차와 의식에 쓰이는 검, 다양한 종류의 왕관들, 예술 작품들, 그리고 귀중한 보석으로 치장된 외국에서 온 선물들을 방문객들에게 매일 보여준다.

누르는 일이 끝나고 난 뒤에 크고 에어컨이 딸린 집에 돌아와 유니폼을 벗고 브루나이의 많은 다른 집들과 같이 금실로 된 소파에 앉아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한다. 잠시 스마트폰을 보며 오늘 저녁 금식 이후에 어디서 가족들과 외식을 할 지 생각한다. 그녀의 남편은 직장에 있고 아이들은 곧 종교 수업을 마치고 가족 개인 운전수가 운전하는 차로 돌아올 것이다. 위층 거실 창문으로 도시의 풍경을 가로질러 금빛으로 반짝거리는 여러 개의 모스크의 지붕을 볼 수 있다. 누르는 이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친숙하고 듣기에 부드러운 일몰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모스크에서 들려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 3월 24일 일요일

동남아시아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나라의 성공과 영광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하자.

### 3월 25일 월요일

브루나이 말레이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드러내셔서 결국 예수님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이룩한 영화와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자.

### 3월 26일 화요일

거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무슬림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월 27일 수요일

브루나이에 있는 지역 교회들은 면밀히 감시를 받고 있다. 지역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 있는 교회들이 그 지역 당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도록 기도하자.

### 3월 28일 목요일

해외에서 거주하는 브루나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 살며 함께 일하는 브루나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월 29일 금요일

해외 여행을 가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는 브루나이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자.

### 3월 30일 토요일

브루나이의 무슬림들과 함께 살며 섬기기를 자원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자.

# 문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5절

고대 시대에는 밤에 낯선 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성문을 닫았다. 오늘날에도 한 나라의 국경이 이와 비슷하게 통제되고 막혀있다. 미얀마로부터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박탈 당한 채로 핍박 받는 무슬림 민족인 ‘로힝야족’에게 국경 문은 지속적으로 닫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민족들과 여러 문화에 열려있는 문을 가진 영원한 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적법한 서류가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소미나라’는 고향과 멀리 떨어진 난민 캠프에서 라마단을 보내고 있다. 7개월 임신부인 그녀는 금식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 금식을 하는 남편을 위해 수호르(라마단 단식 기간 동안 이른 새벽에 먹는 식사)를 준비한다. 더운 계절에 그들이 거의 없고 선풍기를 돌리기에 충분치 않은 전력을 가진 난민 캠프의 임시 거처에서 보내는 라마단은 견디기가 무척 어려울 수 있다. 자선단체의 기부를 통해 제공된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앞으로가 걱정스럽다. 남편 ‘하산’은 국경을 몰래 넘어가 옆 나라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산은 난민 캠프에 임시로 만들어진 모스크에서 라마단 동안에 할 수 있는 늦은 밤의 기도인 타와리에 참석한다. 그는 이번 주에 ‘꾸란 선포의 밤’을 준비하고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보냈다. 천사 지브릴(가브리엘)이 선지자에게 꾸란의 첫 번째 구절을 보여주었다고 믿어지는 날 밤은 라마단의 마지막 10일이다. ‘꾸란 선포의 밤’은 기도가 응답 되는 그 해에 가장 거룩한 밤으로 여겨진다. 하산은 가족들이 원할 때마다 오고 갈 수 있는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와 그 곳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도록 신에게 요청할 것이다.

### 3월 31일 일요일

하나님께서 로힝야인들에게 그들이 찾는 영원한 안전함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는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시도록 기도하자.

### 4월 1일 월요일

로힝야인들과 다른 무슬림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선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 4월 2일 화요일

예수님을 따르는 로힝야인들이 그분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더불어 더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도록 기도하자.

### 4월 3일 수요일

일을 위해 떠나는 남편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자. 가족 간에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고 위로의 주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자.

### 4월 4일 목요일

복음 자료들이 유인물, 시청각 녹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로힝야 언어로 제공되고 배포되도록 기도하자.

### 4월 5일 금요일

공정한 본국송환을 할 의지가 있는 공정하고 자비로운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 일이 로힝야인들의 피부에 와 닿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 4월 6일 토요일

‘구관 선포의 밤’이 가까워 지면서 종교적인 열정이 불타오르게 될 텐데 주님께서 꿈과 비전 그리고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로힝야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기도하자.

# 순전함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동남아시아 무슬림들은 라마단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드 알피트르’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어떤 이들은 벽에 간 금과 더러운 자국들을 덮기 위해 집에 다시 페인트를 칠한다. 많은 무슬림들이 새 옷을 사서 깔끔하고 멋지게 보이려고 한다. 이런 행동들이 라마단을 보내며 무슬림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즉, ‘순전함으로의 회복’이 겉으로 보여지는 방식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고 선포한다. 아무리 많은 양의 페인트를 덧칠해도 인간의 죄와 불완전함을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죄인들에게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

‘살리마’는 태어난 지 다섯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가 태어나기 전 몇 달의 기간보다 현재의 상황이 더 나아 보인다. 살리마의 어머니 ‘시스카’는 열 다섯살 인데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 모든 가족들이 겁에 질린 채로 격분했었다. 결혼의 울타리 밖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인도네시아 문화에서 불결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에 시스카의 가족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돕는 센터에 대해서 들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역에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시스카는 미혼모가 되어버린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했지만 그 공동체에서 수용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

살리마를 흔들어 재운 뒤, 시스카는 이드 알피트르 축제를 준비하는 그녀의 가족을 떠올렸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시스카에게 라마단은 무슬림들이 바라는 것처럼 순전함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그녀 자신과 딸을 위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허물 많은 삶 속에 들어가 새로운 시작을 돕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미혼모 센터의 스태프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부활절에 인도네시아의 국영방송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를 방영한다. 무슬림 가정들이 이 영화를 시청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기도하자.



#### 4월 7일 일요일

라마단에 불결함과 수치심을 느끼는 동남아시아에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자. 부정적인 감정들이 은혜의 복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자.

#### 4월 8일 월요일

라마단 동안 성공적으로 매일의 금식을 마친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 4월 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에 있는 취약한 무슬림 여성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센터들의 사역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 하시도록, 사역을 위한 재정의 공급을 위해 기도하자.

#### 4월 10일 수요일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수들이나 도시의 가난한 자들과 같이 수치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무슬림들에게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를 알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 4월 11일 목요일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따르고 문화와 종교가 다름에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 4월 12일 금요일

인도네시아의 2억 3천만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접 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 라마단 이후

단순히 라마단이 끝났다고 해서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을 알아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무슬림들, 특히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  
기도하는 기도모임을 만들거나 그 기도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mailbox@howtoprayformuslims.org](mailto:mailbox@howtoprayformuslims.org)

금식은 이드 알피트르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이어갑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금식하며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저녁메뉴에 활기를 더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가장 가까운  
아시안 식료품점을 찾아가 보고 이전에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동남아시아 요리를 시도해보세요!

동남아시아의 무슬림 종족들에 대한 기도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세요. [www.apeopleloved.com](http://www.apeopleloved.com)

‘무슬림을 위한 기도 방법’이라는 기도 가이드북을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howtoprayformuslims.org](http://www.howtoprayformuslims.org)

아래의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동남아시아 무슬림들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www.prayercast.com](http://www.prayercast.com)

이 기도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올 한해 계속 동아시아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